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553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7월 27일 (음력 6월 15일) 금요일

## 광주발 대북교류 '훈풍' ...미술 이어 공연 추진

광주(發) 대북교류에 훈풍이 불고 있다.

북한작품 특별전시회에 이어 이번에는 북한공연단 광주 현지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내년 광주세계수영대회가 한반도 평화의 전령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6일 하반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배정된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의 면담에서 "올 가을 북한공연단의 방문 시 일부 공연을 떼어 내 광주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공연단의 가을 공연은 지난 4월 평양

### 북한공연단 가을 방문 시 광주공연 추진

### 북한 미술작품 22점, 광주비엔날레 전시

에서 열린 '불이 온다'의 답방 공연으로 '가을이 왔다'는 타이틀로 진행된다. 문체부는 현재 북측과 구체적인 공연 일자를 조율 중이다.

문체부 황성운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가을이 왔다" 공연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언제쯤 하는 것이 좋을지 북측에 문의한 상태다. 날짜가 오는 대로 섭외 가능한 최적의 공연장을 모색해 실무 준비에 들

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그동안 2019세계수영대회를 앞두고 북측에 선수단과 공연단 참가를 즐기게 요구해 왔다. 국제수영연맹(FINA)도 적극 협조하고 나선 상태다.

시는 북한공연단의 올 가을 공연이 성사될 경우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또는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치러진 광주여대 시립 유니버시아드경기장 등 2곳 중 한 곳에서 공연을 치를 예정이다. 북한 단독 공연이 될 지, 합동공연이 될 지, 시립국악단 찬조출연이 이뤄질 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9월에는 북한 미술작품 특별 전시회도 열린다. 광주비엔날레재단에 따르면 9월7일부터 11월11일까지 광주 비엔날레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지에서 펼쳐지는 2018 광주비엔날레에 '북한미술 사회주의의 사실주의의 패러독스 전(展)'이 열린다.

광주에 들어올 북한 작품은 평양 민수대

창작사에서 창작된 작품으로, 북경 민수대 창작사미술관과 워싱턴 '예도 예술재단'(Yedo Arts Foundation)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4~5m 크기의 대형 집체화도 5~6점이나 된다.

7월 말부터 항공편을 이용해 반입될 예정이며, 다음달 중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6관에 설치된다. 광주비엔날레 측은 북한작가도 초청하기 위해 김성민, 최창호, 김인석 작가 등에게 초청장을 발송했다.

광주시는 남북교류에 물꼬가 트이면서 평화무드가 지속될 경우 개막을 1년 앞둔 세계수영대회에 북측선수단이 참가하고 남북 단일팀 구성도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북측이 원할 경우 전지훈련 장소와 시설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워둔 상태다. 국제수영연맹의 지원 약속도 수차례 공식화했다.

시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10년 만에 무르익은 화해 무드가 내년 수영대회를 계기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또 이제 막 시작된 화해의 물꼬가 평화의 물결, 통일 의 바다로 나아가는 발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영산강 수질·저질토 조사 26일 광주 남구 승촌보 상류 우안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 등이 수문 개방에 따른 수질·토양 오염도 추이 분석과 생태 조사를 하고 있다.

### Photo漫評

#### 산 넘어 산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국 연루설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등 자신의 의혹과 관련해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이 지사는 25일 김남준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이 대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국과 각종 권력 사이의 유착관계를 밝히기 위해 정식으로 검찰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검찰 수사를 요구한 배경에 대해 지난 선거부터 최근까지 저를 향한 음해성 조롱을 이가 쏟아지고 있다. 결국 조국과 결탁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악성 음해에 대응을 자제해왔고 민선7기 경기도의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에서 신명을 쏟을 이유가 없었으나 실제는 허깨비'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미참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진실을 감추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되었다고 고백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본다.

서은홍·자료사진=뉴시스



##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에 현안 협조·지원 요청

### 서울서 예산정책간담회 개최

전남도는 26일 서울에서 지역 출신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간담회를 열어 민선7기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2019년 국고 현안사업과 주요 정책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지난 4월 예산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8월 중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되는 점을 감안 국회와 협력해 정부 예산안에 현안사업이 대거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또다시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지역 출신 비례대표 1명을 포함해 총 11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2년 연속 정부예산에 6조 원 이상이 반영됐다"며 "올해도 한바탕 한바탕으로 힘을 모아 초당적으로 공동 대처함으로써 지역 현안사업들이 국가 계획과 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어 현안사업 국고지원 건의 33개 사업 총사업비 11조 1945억 원(2019년 건의액 7214억 원) 규모의 예산과 정책 지원 건의 6건, 총 39건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주요 국고지원 현안 건의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및 에코 생태식품공원 조성 ▲서남해안 관광도로(완도~고흥) 건설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건설 및 전철화 사업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사업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센터 건설 ▲서남해안 해양관광벨트조성사업 지원 ▲국립삼척해안관광센터 설립 등 33건이다. 또 ▲에너지산업융합단지 선도모델 육성 ▲차세대 ESS산업 생태계 구축 ▲한진공대 설립 ▲남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2단계사업 추진 등도 건의했다.

김영환 기자

하계 휴가로 다음호 8월 6일자 발행합니다

제46회 강진 청사축제

2018. 7. 28.- 8. 3. (7일간)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

개막퍼포먼스 : 2018. 7. 28.(토) 오후 7시

기획행사 : 춤을 받고·던지고·찍시고(투게더 점핑 소일), 전국 물레성형경진대회 등  
전시행사 : 전국 도자 전시 및 판매, 제18회 고려청자 특별전, 조선민화 특별전 등  
체험행사 : 불링공 청자 깨뜨리기, 물 풍선터뜨려 청자 가져가기, 초대형 워터 슬라이딩  
공연행사 : 광주KBC개막 축하쇼, 나이트 팝 페스티벌, 한여름밤의 EDM 공연 등

제11회 정남진 장흥도초축제

2018. 7. 27.(금)~8. 2.(목) / 7일간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

개막식 : 7월 27일 (금) 오후 8시  
삼수(瀟水)대첩 거리 퍼레이드 : 7월 28일 (토) 오후 1시  
지상 최대의 물싸움 : 7월 27일 (금) ~ 8월 2일 (목) 오후 2시  
맨손 물고기 잡기 : 7월 28일 (토) ~ 8월 2일 (목) 오후 3시  
장흥 워터樂 폴파티  
- 7월 27일 / 로꼬, 다이나믹듀오, DJ 소다, DJ 두유  
- 7월 28일 / DJ 원투, DJ 허조코  
- 7월 29일 / DJ 춘자, DJ miss K

전국물레성형경진대회

투게더 점핑 소일

초대형 워터 슬라이드